

자유학기의 수업 운용과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전은주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 * 이 논문은 제63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4.22-2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서론
- II. 자유학기 수업 의사소통 활동을 바라보는 국어과 교수-학습적 전제
- III. 자유학기 수업 운용과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국어 교사의 평가
- IV.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개선 방향
- V. 결론

I. 서론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국어과 수업 운용 현황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국어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어과 수업 혁신을 위한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¹⁾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http://www.ggoomggi.go.kr). 2012년 11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공약 발표 이후 2013년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를 운영하여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

1) 이 논문은 2017년 4월 22일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학술대회의 주제가 '자유학과 국어 수업의 혁신'이어서 주제 발표 논문이었던 본고의 목적에 '국어과 수업 혁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어과 수업 혁신'의 이면에는 '자유학기 수업 개선'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고려되었음을 밝힌다. 또 본고에서 '의사소통'은 '국어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2016년 자유학기제 성과(교육부, 2017: 1)

(응답자 수: 총 152,440명-학생 87,521명, 교사 29,175명, 학부모 35,744명)

한 방안을 준비하였다. 2015년 11월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6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2016년 12월 자유학기제 시행 후 만족도 조사에서 〈그림 1〉과 같이 학생들로부터는 학교생활 행복감과 수업 참여가 높아졌다는 반응을, 교사들로부터는 더 다양하게 수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 역량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얻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는 학교 교육에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고 학교 만족도 역시 더 높아졌다는 반응을 얻었다.

교육부(2017)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중학교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²⁾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7년 2월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교육부(2017)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자유학기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3월부터 전국 406개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뒤 2학년 1학기는 연계학기를 갖는 등 일반학기에도 자유학기제 성과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미경험 학생/경험 학생 점수: (국) 213.2 < 214.4, (영) 222.4 < 223.2, (수) 213.4 < 214.8 (한국교육총단연구(2016), KEDI) - 교육부(2017: 1 재인용)

그간 자유학기제를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이므로 시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는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관련 연구(김은정, 2013; 홍후조 외, 2013), 자유학기제와 법 관련 연구(손희권, 2013; 이덕난,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사례 연구(김달호, 2015; 김미진 외, 2014; 이병환·권민석, 2015; 정영희 외, 2016),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연구(김동일 외, 2016) 등이 있다(줄고, 2017: 184). 이들 연구는 교육학 일반적 관점에서 자유학기제를 교육 현장에 시행하기 위한 접근이므로 개별 교과교육 자체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이 기존의 교과교육에 어떤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어교육계에서 수행된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는 자유학기 수업 활동에서의 의사소통 연구와 자유학기제의 국어과 적용 연구로 구분 가능하다. 옥현진(2014), 줄고(2017)는 자유학기 수업 활동에서 수행되는 의사소통 양상에 대하여 살피고 국어과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 연구이고, 김평원(2015), 정현선·오은하(2016), 임옥규·신호철(2016)는 자유학기제 시행이 국어과 교육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며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적용에 대하여 탐색한 연구이다.³⁾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일반학기의 교육과정 재구성 이 불가피하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은 핵심 성취 기준에 따라 학습 목표 및 하위 영역을 통합하거나(옥현진, 2014; 정현선·오은하, 2016), 교과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거나 생략하고 단원 순서

3) 김평원(2015)은 자유학기 연구학교에서 시행했던 교과 융합 수업이 주제 중심 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어, 사회, 도덕 교과와 수학, 과학, 기술·가정 교과를 융합한 프로젝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옥규·신호철(2016)은 자유학기의 체험활동에서 역사소설에 구현된 장소를 중심으로 문학, 역사, 지리적 장소의 의미를 상호연관성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합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이다.

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정현선·오은하, 2016). 그러나 이처럼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국어과 시수가 감축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 진도 부담,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맞지 않음, 중요한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 결손, 학습자의 언어 수행 기회가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줄고, 2017).

지난 20여 년 간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학습자 중심, 수행 중심, 활동 중심 수업 등을 지향해 왔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입시라는 현실적 이유로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자유학기제는 그간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교수-학습 방법을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된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다각도의 면밀한 점검 없이 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소 성급한 부분이 있다. 자유학기 수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는 구두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애초 교육에서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활동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중학교 학습자가 자유학기 의사소통 활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⁴⁾ 이에 본 고에서는 국어과 수업에서 자유학기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자유학기 수업에서 수행되는 구두 의사소통 활동에 대하여 국어과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안정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 시행 후 양상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II. 자유학기 수업 의사소통 활동을 바라보는 국어과 교수-학습적 전제

1. 자유학기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의 기능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수업에서 독후감, 소감문, 체험활동 보고서, 동아리 일지, 학습일기(자기주도학습 기록지) 등의 쓰기 활동과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동이나 발표·토론 등의 음성언어 활동이 자주 확인된다(옥현진, 2104).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부(2015)에서는 자유학기동안 오전에는 ‘교과’ 교수-학습을,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하도록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편성,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유학기동안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게 하였다. 특히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 간 융합 수업을 하며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은 공통적으

		교육과정 편성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참여와 활동 중심	평가 및 기재 과정 중심 평가
구분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제고 » 교육과정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 »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실시
	자유학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활동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 »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 » 학생의 꿈·끼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

<그림 2>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교육부, 2015: 8)

로 학습자 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주어지며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은 전체 학습의 과정과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유학기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방법을 장려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학습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유학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수행하는 의사소통 활동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첫째,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 간 협력의 과정이다. 둘 이상의 참여자가 수행하는 구두 의사소통은 참여자 간의 인간관계가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참여자가 자기주장만 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되고 상호 공격적인 경우 의사소통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 간 의사소통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고 확장하게 하며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적극적 과정이다. 과제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 평가, 수정하여야 하며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 활동은 과제 수행의 방법이자 곧 담화 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수행 경험의 과정이다. 자유학기 수업에서 수행되는 의사소통 활동은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학습자에게는 구두 의사소통 방법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행이 일어날 수 있는 담화 맥락이 조성되어야 하고 학습자가 진지하게 의사소통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습자 수행의 협력성, 적극성, 유의미한 활동 경험 등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협동 학습'의 원리로 강조하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자유학기 활동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진로탐색이나 주제선택, 동

아리 활동에서 구성원 간의 활동을 매개로 의미있는 학습을 추구한다면 결국 학습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중등학교에서 학습자 간의 협동학습의 양상이 이론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거나 그간의 의사소통 교육이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길러 주지 못하여 학습자가 자유학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국어과 수업과 자유학기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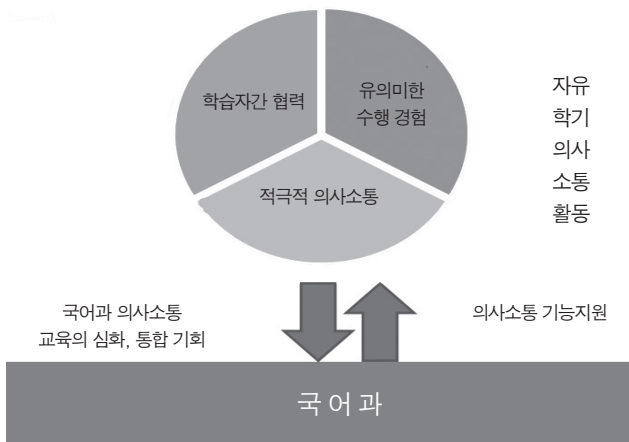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은 일반학과 자유학기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학과 달리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자유학기 기간의 학교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2015: 11)에서는 기존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업 시수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수업 시수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별 시수 감축은 불가피하다. 김미진 외(2014: 237-238)에 따르면 2013년의 전국 42개의 연구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공통과정에서 필수 교과의 시수를 전체 시수의 64.4%로 대폭 감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시수를 대폭 증가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옥현진(2013: 72)에서도 2013년도, 2014년도 연구학교의 운영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전체 응답 대상 학교 중 50%의 학교에서 국어 수업 시수를 감축했으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65.6%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 밝히고 있다. 줄고(2017: 191)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이후 국어과의 수업 시수가 주당 5단위에서 적게는 4단위로, 많게는 2단위로 감축되었다. 시수 감축으로 인하여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하는 데 따른 여러 문제가 예측되므로 국어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현상 파악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이미 시행된 제도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유학기 기간에 국어과 교육과 자유학기 활동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국어과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 수업 활동은 학습자의 참여와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하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과제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교과와 달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국어과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므로 국어과 교육의 관점에서 자유학기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활동과 국어과 교수-학습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타당한 관계 설정은 국어과 교육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적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는 국어과 교육의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시수 감축과 이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관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교육 행정적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득보다 실이 많으나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벗어나 교육의 혁신과 학습자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경험이 일어나도록 내실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선 국어과는 자유학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유학기 수업에서 토론, 토의, 발표, 대화, 면접 등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므로 기본적으로 이들의 의



〈그림 3〉 국어과 수업과 자유학기 의사소통 활동의 관계

사소통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유학기 수업을 통하여 성취하기를 바라는 학습의 효과는 기대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국어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교수-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위의 〈그림 3〉과 같이 자유학기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능력을 조성하는 것 역시 국어과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자유학기 수업에서 현상적으로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의사소통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학습자가 제대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즉 도구로서 의사소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그간 국어과 듣기·말하기 교육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서 다양한 담화 유형, 목적, 상황별 듣기·말하기 교수-학습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학습자의 구두 의사소통 경험 역시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듣기·말하기 영역과 국어과 내 타 영역의 통합 학습이나 타교과와의 통합 학습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방안 역시 여러 논의에서 제안된 바 있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

의 참여와 경험, 의사소통 활동 등을 강조하므로 국어과의 관점에서는 학습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던 의사소통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III.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 운용과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국어 교사의 평가

1.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 2016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 수업을 한 부산 지역 중학교 20개교의 국어과 교사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2016년 자유학기제 수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2016년 12월1일 -12월 22일에 시행되었다. 피조사자인 국어 교사는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로 직접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조사대상 교사는 한 학교당 1-2인이었고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3명까지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 교사는 30대가 33.33%로 가장 많았고 50대 25.65%, 40대 20.51%로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지 않게 하였으나 중학교 교육 현장에 20대 교사의 수가 적다보니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본 중학교 국어 교사 중 20대 교사의

〈표 1〉 조사 대상(명)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미확인	합
남	1	2	1	2	1	7
여	4	11	7	8	2	32
합	5(12.82%)	13(33.33%)	8(20.51%)	10(25.65%)	3(7.69%)	39(100,00%)

〈표 2〉 조사 내용

내용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운용	자유학기의 국어과 및 자유학기 활동	1. 국어과 중심 타교과 간 융합 연계 활동
		2. 타교과 중심 국어과와 융합 연계 활동
		3. 국어과 수업에서 진로 연계 활동
		4. 국어과와 관련 있는 자유학기제 활동 편성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수- 학습 문제	5. 수업 시수 감소로 인한 진도 부담
		6. 수업 시수 감소로 인한 핵심 성취기준 중심 수업 때문에 중요 학습 결손
		7. 수업 시수 감소로 인한 핵심 성취기준 중심 수업 때문에 지식 중심 수업
		8. 수업 시수 감소로 인한 핵심 성취기준 중심 수업 때문에 적용 활동 불충분
자유학기제 수업 내 학습자 구어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9. 토론 수행 기회 증가
		10. 토의 수행 기회 증가
		11. 발표 수행 기회 증가
		12. 면담 수행 기회 증가
		13. 대화 수행 기회 증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14. 토론 능력 향상
		15. 토의 능력 향상
		16. 발표 능력 향상
		17. 면담 능력 향상
		18. 대화 능력 향상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19. 토론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20. 토의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21. 발표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22. 면담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23. 대화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의사소통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24. 토론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25. 토의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26. 발표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27. 면담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28. 대화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수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담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운용과 자유학기 수업 중 학습자 구어 의사소통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2>의 문항 1-23은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으며 문항 24-28은 교사가 느낀 점을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 내용 중 ‘자유학기제 수업 내 학습자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는 줄고(2017)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일치되게 항목을 구성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줄고(201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자유학기제 수업 내 학습자 의사소통 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 간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척도 반응형 문항은 SPSS 16.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모수적 검정은 평균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활용하였고, 비모수적 검정은 Chi square test 및 Fisc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또 자유 응답형 문항은 교사별로 반응을 정리하고 각 반응에 대하여 문장 단위로 핵심 의미를 추출한 후 조사 대상자의 구분 없이 핵심 의미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유형 분류하였다.

2.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국어과 수업 운용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국어과의 수업 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1-8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보았다. 조사대상 39명 중 37명이 응답하였으며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문항에서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유학기제 시행 후 자유학기의 수업 활동과 국어과 교수-학습의 문제에 대하여 교사 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문항별로 응답 분포를 살펴보고 교사의 인식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표 3〉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국어과 수업 운용

		N	Mean	Std. Deviation
자유학기의 국어과 및 자유학기 활동	국어과 수업에서 타교과 융합 연계활동	39	2.95	1.20
	타교과 수업에서 국어과와 융합 연계 활동	39	2.97	1.21
	국어과 수업에서 진로 연계 활동	39	3.62	1.23
	국어과 관련 자유학기제 활동 편성	39	3.89	1.26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수·학습 문제	진도 부담	39	3.22	1.42
	중요 학습 결손	39	2.86	1.32
	지식 중심 수업	39	2.38	1.19
	적용 활동 불충분함	39	2.54	1.17

먼저 자유학기제 시행 후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수업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어과와 타교과 간의 융합 연계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7.7%, ‘그렇지 않다’가 35.9%로 나타났다. 또 국어과 수업에서의 진로 연계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5.1%, ‘그렇지 않다’가 17.9%로 나타났다. 이 내용에 대한 〈표 3〉과 〈표 4〉의 반응을 통하여 교육부(2015)에서 강조되었던 융합 연계 활동과 진로 연계 활동 중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진로 연계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교과와 내용을 융합하고 연계하여 활동을 구성하는 것보다 진로와 연계하여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구성 측면에서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학습 활동에 대한 부담도 적게 준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어과에서 시수 감축으로 핵심 성취 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하느라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교과와의 융합 연계 활동으로까지 나가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감축된 국어과 시수를 국어과와 관련있는 자유학기제 활동에 편성하였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7.7%, ‘그렇지 않다’가 7.7%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 국어교사 중 다수인 79.6%가 자유학기제 활동을 구성할 때 감축된 국어과 시수와 국어 학습을 고려해야 함을

〈표 4〉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국어과 수업 운용에 대한 응답 분포(N=39)

내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어과 수업에서 타교과 융합 연계활동	3(7.7%)	14(35.9%)	6(15.4%)	10(25.6%)	4(10.3%)
타교과 수업에서 국어과와 융합 연계 활동	3(7.7%)	14(35.9%)	5(12.8%)	11(28.2%)	4(10.3%)
국어과 수업에서 진로 연계 활동	2(5.1%)	7(17.9%)	4(10.3%)	14(35.9%)	10(25.6%)
국어과 관련 자유학기제 활동 편성	3(7.7%)	3(7.7%)	4(10.3%)	12(30.8%)	15(38.5%)
진도 부담	4(10.3%)	11(28.2%)	5(12.8%)	7(17.9%)	10(25.6%)
중요 학습 결손	7(17.9%)	9(23.1%)	7(17.9%)	10(25.6%)	4(10.3%)
지식 중심 수업	12(30.8)	7(17.9%)	11(28.2%)	6(15.4%)	1(2.6%)
적용 활동 불충분함	9(23.1%)	9(23.1%)	10(25.6%)	8(20.5%)	1(2.6%)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국어과 교수-학습의 문제를 진도 부담, 중요 성취기준 결손, 지식 중심 수업화, 적용 활동의 불충분함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표 4〉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시수 감축으로 인해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진도 부담을 느끼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가 17.9%, ‘매우 그렇다’가 25.6%로 나타났다. 또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 중요한 학습 내용이지만 핵심 성취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가 25.6%, ‘매우 그렇다’가 10.3%로 나타났다.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으로 인하여 지식 중심 수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가 15.4%, ‘매우 그렇다’가 2.6%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으로 인하여 적용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가 20.5%, ‘매우 그렇다’가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옥현진(2015), 줄고(2017)에서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하여 국어과 시수가 감축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교수-학습상의 문제점을 자유학기제 시행을 직접 경험한 국어 교사의 다수가 실제 그렇다

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더 확대하여 시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국어교육적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교수-학습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자유학기제 수업 내 학습자 의사소통 활동

1) 의사소통 수행 기회와 능력 신장 및 학습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자유학기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수행과 경험을 강조하고 학습 방법으로서 의사소통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한 의사소통 활동이 실제 자유학기제 시행에서 잘 지켜졌는지 또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을 관찰하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5〉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수행 관련 교사의 인식

내용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
평균	4.31	4.46	4.33	4.67	4.44	3.85	3.97	4.05	3.62	4.10	4.33	4.44	4.38	4.23	4.28
표준 편차	0.73	0.72	0.70	0.96	0.64	0.78	0.78	0.76	0.85	0.75	0.81	0.72	0.75	0.81	0.83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기회가 실제 증가되었는가’에 대한 반응은 〈표 5〉와 같다. 응답의 평균이 토론은 4.31, 토의 4.46, 발표 4.33, 면담 4.67, 대화 4.44로 대부분 조사 대상 교사가 담화 유형 5가지 모두에 대하여 수행 기회가 증가하였다고 반응하였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토론은 3.85, 토의 3.97, 발표 4.05, 면담 3.62, 대화 4.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어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을 통하여 담화 유형 중 대화 능력이 가장 신장되었다고 반응하였고 이어 발표 > 토의 >

토론〉면담 순으로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더 학습을 하고 자유학기 수업 활동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토론은 4.33, 토의 4.44, 발표 4.38, 면담 4.23, 대화 4.28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담당 하였던 국어교사의 입장에서 5가지 담화 유형 모두에 대하여 학습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의 양상을 관찰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반영한 교수-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수행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의 결과는 줄고(2017)에서 동일한 질문을 학습자에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줄고(2017: 195)에 제시된 이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과 이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자유학기제 수업 의사소통 수행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면담 수행 기회 증가, 토론 능력 향상, 토의 능력 향상, 면담 능력 향상, 대화 능력 향상에 대한 항목이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이전보다 면담 수행 기회가 증가되었다는 반응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습자 집단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43.8%, ‘그렇다’가 29.7%이나, 교사집단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3.1%, ‘그렇다’가 30.8%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면담 수행 기회가 증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보다 학습자 집단에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면담과 대화가 비슷한 속성이 있으므로 학습자 중 일부가 대화를 수행한 후 수행한 담화 유형을 면담으로 이해한 경우에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학기제 수업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학습자의 발표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에는 교사와 학습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의 발표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두 집

〈표 6〉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의사소통 수행 관련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비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p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토론	학생	7(1.3%)	20(3.8%)	69(13.1%)	146(27.8%)	282(53.9%)	0.168
		교사	0(0%)	1(2.6%)	3(7.7%)	18(46.2%)	17(43.6%)	
	토의	학생	4(0.8%)	9(1.7%)	36(6.9%)	150(28.6%)	326(62.1%)	0.833
		교사	0(0%)	1(2.6%)	2(5.1%)	14(35.9%)	22(56.4%)	
	발표	학생	2(0.4%)	11(2.1%)	63(12.0%)	142(27.0%)	307(58.5%)	0.346
		교사	0(0%)	0(0%)	5(12.8%)	16(41.0%)	18(46.2%)	
	면담	학생	10(1.9%)	26(5%)	103(19.6%)	156(29.7%)	230(43.8%)	0.027
		교사	0(0%)	4(10.3%)	14(35.9%)	12(30.8%)	9(23.1%)	
	대화	학생	2(0.4%)	4(0.8%)	36(6.9%)	138(26.3%)	345(65.7%)	0.338
		교사	0(0%)	0(0%)	3(7.7%)	16(41.0%)	20(51.3%)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토론	학생	6(1.1%)	19(3.6%)	92(17.5%)	157(29.9%)	251(47.8%)	0.011
		교사	0(0%)	1(2.6%)	12(30.8%)	18(46.2%)	8(20.5%)	
	토의	학생	6(1.1%)	16(3.0%)	83(15.8%)	162(30.9%)	258(49.1%)	0.050
		교사	0(0%)	1(2.6%)	9(23.1%)	19(48.7%)	10(25.6%)	
	발표	학생	6(1.1%)	15(2.9%)	83(15.8%)	164(31.2%)	257(49.0%)	0.081
		교사	0(0%)	1(2.6%)	7(17.9%)	20(51.3%)	11(28.2%)	
	면담	학생	9(1.7%)	17(3.2%)	112(21.3%)	158(30.1%)	229(43.6%)	0.001
		교사	0(0%)	4(10.3%)	12(30.8%)	18(46.2%)	5(12.8%)	
	대화	학생	7(1.3%)	9(1.7%)	63(12.0%)	162(30.9%)	284(54.1%)	0.050
		교사	0(0%)	0(0%)	9(23.1%)	17(43.6%)	13(33.3%)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토론	학생	2(0.4%)	11(2.1%)	59(11.2%)	152(29.0%)	301(57.3%)	0.947
		교사	0(0%)	1(2.6%)	5(12.8%)	13(33.3%)	20(51.3%)	
	토의	학생	3(0.6%)	7(1.3%)	64(12.2%)	151(28.8%)	300(57.1%)	0.495
		교사	0(0%)	1(2.6%)	2(5.1%)	15(38.5%)	21(53.8%)	
	발표	학생	2(0.4%)	9(1.7%)	55(10.5%)	155(29.5%)	304(57.9%)	0.771
		교사	0(0%)	1(2.6%)	3(7.7%)	15(38.5%)	20(51.3%)	
	면담	학생	5(1%)	10(1.9%)	77(14.7%)	147(28.0%)	286(54.5%)	0.069
		교사	0(0%)	2(5.1%)	3(7.7%)	18(46.2%)	16(41.0%)	
	대화	학생	3(0.6%)	10(1.9%)	51(9.7%)	151(28.8%)	310(59.0%)	0.284
		교사	0(0%)	2(5.1%)	3(7.7%)	16(41.0%)	18(46.2%)	

p<0.05, chi square 분석

단 모두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유학기제 수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이전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하여 ‘토론’, ‘토의’, ‘면담’, ‘대화’ 능력이 신장되었다는 반응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 담화 유형의 경우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교사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학생 집단보다 교사 집단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이들 네 담화 유형의 수행 능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은 두 집단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장의 정도에 대하여 학습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수행자로서의 학습자와 지도해야 할 교사, 평가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어과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수업 이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에 나타난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습자가 의사소통 활동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 혹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반영하는 것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자유학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이 외적으로 증대되었고 이러한 수행 참여가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행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행을 직접 관찰한 국어 교사의 관점에서 학습자가 담화 유형별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고 그 반응에 대하여 문장 단위로 핵심 의미를 추출하여 분류한 뒤 계량화하였다.

학습자가 토론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 교

사의 반응은 65회였으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토론 지식 부족(18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토론 기능 부족(11회)’, ‘부적절한 토론 태도(9회)’, ‘말하기 기초 기능 부족(8회)’, ‘시간 부족(6회)’이었다. 토론 수행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교사의 이러한 반응은 줄고(2017)에서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으로 ‘의견 충돌 시 감정적 반응’ > 무임승차, 책임감 없는 동료 등 비협동적 반응 > 반박, 설득하기 어려움 > 장난치거나 잦답하기’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토론 수행에서 지식의 부족, 기능의 부족이 어려움 혹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으나 학습자는 감정적 반응, 무임승차 등의 부적절한 태도가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토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존중,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토론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의사소통 교육에서 태도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토의 수행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의 반응은 51회였으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부적절한 토의 태도(10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 말하기 기능 부족(8회)’, ‘시간 부족(7회)’, ‘토의 기능 부족(6)’, ‘발원 기회 편중(3회)’이었다. 이 역시 학습자들이 ‘의견충돌 시 감정적 반응’ > 무임승차, 비책임성, 비협력 > 떠돌기 > 토의 방법 모름’순으로 반응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즉, 교사와 학습자 모두 ‘부적절한 토의 태도’가 문제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교사가 ‘기능의 부족’이 토의 수행의 어려움, 문제점이라고 다수 반응한 것과 비교해 보면 학습자는 부적절한 토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학습자의 발표 수행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의 반응은 48회였으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자신감 부족(9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잘 하는 학생 중심(7회)’, ‘발표 기능 부족(6회)’, ‘발표 준비 부담(5회)’, ‘발표 시간 부족(5회)’이었다. 발표 수행에 대하여 줄고(2017)에서 학습자가 발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신감 부족’을 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학습자

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발표 능력 부족, 목소리 작음, 내용 배열 > 자료 조사, 발표 자료 준비 > 무임승차, 서로 안 하려고 함, 비협력’을 든 바 있다. 교사의 반응에서 발표 수행이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반응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학습자의 반응 중 ‘무임승차, 서로 안 하려고 함’을 문제라고 지적한 반응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모둠활동에서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학습자가 있기 때문에 모둠 내에서 잘 하는 학생이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교사가 관찰했을 때는 발표 수행이 잘 하는 중심으로 운영되어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는 모둠별로 진행되는 자유학기 의사소통 활동에서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발표 부담과 기회를 고루 안배하며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면담 수행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의 반응은 29 회였으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면담 수행 부족(8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 말하기 기능 부족(5회)’, ‘면담 맥락 조성 어려움(4회)’이었다. 이외 면담의 경우 기타 사례로 분류되는 문제점 혹은 어려움이 여러 개 나타났다. 줄고(2017)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습자들이 면담 수행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면담 안함, 경험 부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반응이다. 학습자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면담 방식 부담-직접 만나기 > 고민 말하기, 표현 힘들’으로 나타났다. 면담 수행의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가장 많이 반응하였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반응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가 두 번째로 많이 반응한 것이 면담 수행에서의 ‘기능 부족’인 반면 학습자 반응에서는 ‘면담 방식의 부담’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습자의 대화 수행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의 반응은 39 회였으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싫어하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7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6회)’, ‘갈등 발생(6회)’, ‘잡담(3회)’, ‘대화 예절 부족(2회)’이었다. 대화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해 학습자의 반응은 ‘의견 충돌 > 떠돌, 장난, 진지함 결여 > 비협조-대화를 안 함, 이기적, 자기말만 하기 > 주제 이탈 > 낮가림, 비적극적(합반할 경우,

친하지 않은 친구)(10)’로 나타났다. 대화 수행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반응에서,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대화 태도에 대한 것이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교사는 ‘싫어하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학습자는 ‘의견 충돌’을 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물론 교사의 반응에서 ‘갈등 발생’을 문제로 지적한 경우가 6회 있기는 하지만 ‘의견 충돌’은 ‘좋지 않은 관계’나 ‘갈등 발생’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된 단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의견 충돌로 가지 않으므로 대화의 갈등 해결 전략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에 나타난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 모두 발표 수행에서는 ‘자신감 부족’에, 면담 수행에서는 ‘면담 수행 부족’에 많은 반응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이외 각 대화 유형별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반응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찰자로서의 교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수행자로서 학습자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반응한 것 역시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참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IV.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개선 방향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 운용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유학기를 담당했던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의 국어과 및 자유학기 활동 구성과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인한 국어과 교수-학습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유학기제 하에서 교과로서 국어과 수업에서는 융합 연계 활동보다 진로 연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교과 간 융합 연계 활동보다는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국어과에 관련된 활

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융합 연계 활동이 교사의 입장에서 활동 구성이 쉽지 않은 점, 학습자의 수행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점, 국어과 시수 감축으로 인하여 진도 부담 혹은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타교과와의 융합 연계 활동까지 나가지 않는 점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자유학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활동에 대하여 조사 대상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의사소통 수행 능력 향상, 의사소통 수업 필요성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 졸고(2017)의 학습자 대상 연구와 면담 수행 기회 증가, 토론 능력 신장, 토의 능력 신장, 면담 능력 신장, 대화 능력 신장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가 증가하였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능력이 향상하였고, 의사소통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면담’ 이외에는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시 겪는 어려움 혹은 문제점은 학습자의 반응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개선 방향을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 구성면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시 학습자가 자유학기 수업에서 사용할 담화 유형에 대하여 사전에 교수-학습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면담 교수-학습을 들 수 있는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면담 교수-학습이 중학교 1-3학년군에 처음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유학기 시행 전 학기나 최소한 자유학기에서 면담을 수행하기 이전에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먼저 배우고 익힌 후 이에 대하여 학습하게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와 학습자 집단 모두에서 면담 수행 경험이 적거나 없었음을 가장 큰 문제로 반응한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수업과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의 담화 유형 학습

을 연계하여 자유학기 수업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담화 유형 학습이 심화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우선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시수가 감축되어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하느라 결손 되었던 담화 유형 학습에 대한 부분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국어과에서 학습한 담화 유형이라 하더라도 담화의 상황과 목적, 대상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수행 경험의 난도를 높일 수 있게 자유학기 의사소통 활동을 구성한다면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장을 교과 밖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교과 간 융합 연계가 가능한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김평원(2015), 임옥규·신호철(2016)에 제시된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넘어서 국어 화법 문화, 국어 화법 사용 변천, 인간 구어 의사소통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의 내용을 타교과 내용과 융합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 연계 학습의 내용을 개별 교사가 개발하고 적용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크므로 국가 수준에서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방법면에서 담화 유형별 태도 교육을 교사가 설명하고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례 중심, 경험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담화 수행에 지켜져야 할 태도를 관념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학습자에게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간 원론적으로 태도 교육에서 강조하던 것을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의사소통 수행에서는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습자가 담화 수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긍정적 경험을 유도하고 학습자의 수행 후에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행에 대한 기대

감, 수행 연습을 통한 수행 능력 신장 등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평가면에서 교육과정에서 강조해 오던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수행 평가, 과정 평가, 누가 평가 등이 이제는 중등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기회가 실제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국어과의 듣기·말하기 영역 평가에서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지필평가나 듣기평가로 시행하는 것은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평가의 원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게,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수행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강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혁신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국어 수업의 혁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중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 수업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이 구태를 벗고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본 논문은 2017. 5. 10. 투고되었으며, 2017. 5. 16. 심사가 시작되어 2017. 6. 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가은아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연구보고서 No. CRC 201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7),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내실화 추진」, 보도자료(2017.2.28).
- 김달효(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179-20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동일 외(2016),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원들이 인식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30(2), 345-371, 한국교육심리학회.
- 김미진·이재창·임재일·홍후조(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7(2), 215-241, 한국교육과정학회.
- 김평원(2015), 「중학교 자유학기에 실현된 융합 수업을 통해 본 초등학교 융합 프로젝트의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59, 69-10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육현진(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문식성 교육 실행 양상」, 『작문연구』 23(0), 61-83, 한국작문학회.
- 윤수란·민연숙(2016), 『국어과 자유학기 진로탐색 연계 교과 수업 자료집』,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자유학기제 홈페이지).
- 이병환·권민석(2015), 「연구학교 사례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1(1), 51-7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수연 외(2015), 「자유학기제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사례집: 국어」(연구보고서 No. CRM 2015-55-1), 한국교육개발원.
- 임옥규·신호철(2016), 「역사소설과 국어문화의 국어교육적 연계」, 『어문논집』 65, 241-265, 중앙어문학회.
- 전은주(2017),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2(1), 181-211, 국어교육학회.
- 정영희·이준기·신세인(2016), 「자유학기를 겪어 본 교육주체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라북도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4(3), 777-808,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정현선·오은하(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선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9(2), 1-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Jeffers, G.(2013), "Ireland's transition year: Insights and challenges," In *Proceedings of the 2013 2nd Career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13-42).

자유학기의 수업 운용과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전은주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를 담당했던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의 국어과 및 자유학기 활동의 구성과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인한 국어과 교수-학습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자유학기 수업 내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 하에서 교과로서 국어과 수업에서는 융합 연계 활동보다 진로 연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교과 간 융합 연계 활동보다는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국어과에 관련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어 교사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기회가 증가하였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능력이 향상하였으며, 의사소통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을 전은주(2017)의 학습자 대상 연구와 비교해 본 결과, 면담 수행 기회 증가, 토론 능력 신장, 토의 능력 신장, 면담 능력 신장, 대화 능력 신장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밖에 국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시 겪는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토론, 토의, 발표, 대화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개선 방향을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핵심어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국어교육, 듣기·말하기, 의사소통 교육, 의사소통 능력, 국어 교사, 인식

ABSTRACT

How do the Korean Teachers Recognize the Free Semester Operation and the Communication Activity

Jeon Eunju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teachers in charge of the free semester on the issues related with the Korean teaching-learning lessons. In addition, it also investigated how the teachers recognize speech communication activities during free semester period.

The result shows that during Korean classes as a subject, more time is spent on the career-related activities than on th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activities. For free semester activities, more time is spent on the activity related to Korean subject, rather than inter-subject convergence activities.

Furthermore, Korean teachers evaluate that, due to the free semester, students are given increased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have improve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feel the necessity of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To compare the teachers' response with that of the learners (Jeon, 2017),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terms of increased opportunity for interviewing, and improved capacity of debate, discussion, interview and conversation. Besides, the teachers' recognition on the student's response to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encountered during communication was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responses by the students themselves in the fields of debate, discussion, presentation and conversation.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way to improvement for the Korean classes in terms of contents, method, and assessment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KEYWORDS free semester system, free semester, Korean education, listening-speaking,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Korean teachers, recognition